

국가예산 확보 행정력 집중

전춘성 진안군수, 현재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액 19건 890억원

전춘성 진안군수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표행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 전 군수는 올해 들어 농촌협약사업 비로 426억원(국비 300억, 도·군비 등 126억), 계획공모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138억원, 진안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89억원 등 굵직굵직한 국가예산 확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2022년도 진안군 국가예산 확보액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사업비 426억원을 비롯해 19건 890억원이다. 이는 2020년도 1년간 신규 국가 예산 확보액인 8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다.

이러한 성과는 전 군수의 치밀한 계획과 전략이 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 군수는 실무진과 사업 기획 단계부터 수시로 소통하며 계획의 완성도를 높였고, 전라북도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중앙부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올해만 해도 그는 용담호 광역상수도 전지역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수자원공사, 환경부 등을 수차례 방문한데 이어 지역현안 해결 및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총 20여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공식적인 방문 이외에도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는 물론 정치권과 수시로 만나 지역현안 해결에 박



전춘성 진안군수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발표행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

차를 가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전 군수는 국가예산 목표액 700억원 확보를 목표로 땀 흘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학영 국회의원을 만나 ▲진안 농공단지 아트팩토리사업,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속에서 방역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경제상황을 살피고 지원하는데 사활을 걸어왔다"며 "백신접종 지원 등 중소기업 위생안전장치를 맡고 있는 이학영 국회의원을 만나 ▲진안 농공단지 아트팩토리사업,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반딧불축제 개선 방안 모색

군,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무주반딧불축제가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관광자원들과 연계, 야간축제로의 변화를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무주군이 '무주반딧불축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자리에서다.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진용훈 무주반딧불축제제정위원장, 책임연구원 정강환 교수, 최상규 한국문화관광포럼 대표, 연구원 김주호 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반딧불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진단, ▲당면과제 발굴, ▲중장기(2022년~2030년) 발전방안, ▲축제 조직 및 프로그램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연구진들은 최종보고를 통해 "은종일 무주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힐링투어 유명한 덕유산 구천동 어사길과 신비탐사를 연계해 만나 질 힐링투어와 야간시간대에 반딧불 탐사지로 이동, 신비탐사 프로그램을

체험할 경우 주야간을 연계한 투어형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또 농·특산물 판매는 기존 오프라인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판매와 병행, 판매 할로를 넓히고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해설사를 양성해 축제에 대한 자긍심과 관광객의 축제에 대한 친근감 향상, 체험마을을 연계한 1박 2일 생태 탐험 체험 활성화도 반딧불 축제 발전방향으로 제시됐다.

이번 용역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무주반딧불축제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에서 축제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반딧불축제가 지역의 특색을 잘 반영하는 이색적인 축제이자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축제로 지속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시된 방안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딧불축제 중장기발전방안 최종안은 축제 현황조사를 비롯해 타지역 우수 축제현황 조사, 지역관계자 표적직접 방문조사, 잠재 관광객 대상의견조사 및 분석 등과 이에 기초한 발전방안 제시로 꾸러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착착

접종 대상자 53.2% 1차 접종 마쳐

무주군은 관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2만1,403명(18세 이상)중 53.2%(1만1,385명)가 1차 접종을 마쳤으며 14.3%(3,074명)가 2차 접종까지 끝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보건의료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을 구성한 무주군은 무주읍 예체문화관에 예방접종센터를 마련했으며 11월 말까지

만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만 18세~59세 군민에 대한 접종을 실시한다.

또 무주읍과 실천면, 안성면 소재 7개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6월 19일까지 만 60세~74세, 만성 중증호흡기질환자와 돌봄 종사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6월 30일까지 예약초과로 인한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보건의료원 063-320-8100 / 질병관리청 1339)에

서는 예방접종 예약 및 안내, 민원 대응과 상담을 진행 중이다.

무주군은 1차 접종 군민에게 접종 인증 배지를 배부하고 있으며 1, 2차 예방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군민에게는 반디랜드 곤충박물관과 반다비 천문과학관 입장료를 50% 할인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무주군은 앞으로도 예방접종 동참과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무주군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장'에 대한 이모저모는 오는 27일 일요일 밤 11시 5분 KBS 2TV '다큐멘터리 3일'을 통해 방영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축산 농가 폭염 대응·일제점검

장수군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축산 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폭염 대응 및 일제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동안 폭염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축산농가 가축 폭염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가축피해 예방

및 축산 농가의 경영손실을 최소화한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폭염대비 지원 사업을 조기 추진해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장수군의 폭염대비 축산 농가 지원은 ▲폭염스트레스완화제 지원 ▲폭

염대비 가축 사육환경 개선 ▲폭염대비 환풍기 지원 ▲폭염대비 중형관정 지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등이다.

아울러 폭염피해 예방요령 홍보 및 축산 농가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마을 방송, 문자 등을 통한 폭염대비 사항 관리요령, 축사화재 예방, 축산농가 주의사항 등 축산농가 폭염피해 예방요령을 홍보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사업 본격화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무주군이 7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자 사업(이하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로 코로나19 청정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7월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50명이 입국을 해 12월 초까지 5개월간 무주군 관내 농가에서 일하게 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황인홍 군수는 24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쿠라노브탈랄 무카미디에비치 우즈베키스탄 대령, 비서실 국제경제협력관을 비롯한 우마로브 하일롤라 사이돌라에비치 고용노동부 이주청 청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세부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과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는 우선,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교류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계절근로자의 처

우와 편의(체류기간 인권보호, 안전한 거주 등), ▲교육(기본 소양 및 농작업, 기초 한국어 교육 등), ▲입출국 관련 행정절차 지원에 협력하고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무주군은 시책사업으로 항공료와 산재보험료, 교통비, 간식비, 관리 인건비 등 근로·복지후생 등에 관한 지원을 하게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번기 무주군 관내 5,400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일손은 3만여 명에 달하지만 이를 충당하기는 정말 어려운 실정"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인력수급이 더 어려워진 마당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사업이 결실을 맺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를 믿고 찾아주신 만큼 서로 윈-윈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자 선별부터 근로 이행과 이탈방지, 그리고 안전한 출국까지 국가가 나서 보증할 것"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사업이 더 큰 교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1만명 돌파

장수군 공식 유튜브 채널인 '장수군'이 구독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수군은 지난해 4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농·특산물 홍보 및 지역 소식 등을 알리는데 힘써왔다.

특히 군은 공무원의 친근한 이미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장수군 기획조정실 홍보팀 소속 공무원이 유튜브에 출연해 브이로그, 맛집 소개, 관광지 소개, 군정 소식 등을 '장수뽕 내기', '장수의 흔한 공무원', '장수양이 간다'는 컨셉으로 영상물을 게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무엇이든 물어보소', '캠페인 뮤직비디오' 등 기존 프로그램을 장수군에 맞춰 패러디 한 영상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보지 못하는 주민들이 자녀 등에게 보내는 영상편지가 눈길을 끌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마이학당' 개강

진안군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마이학당'을 연다.

군은 25일 진안군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에이스 휴먼 브릿지 컨설팅 김아연 대표가 '반전 매력 긍정마인드'를 주제로 군민들을 찾아간다.

이번 강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쳐있는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열린다.

특히 대면 교육 시에는 인원을 선착순 90명으로 제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될 예정이다.

입장하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서는 진안군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빠방TV'를 통한 인터넷 시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강의 내용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음 방역 소통의 장, ▲무심코 지나쳤던 자신의 일상을 새롭게 발견하고 다시 들여다보는 방법 등으로 이뤄지며 스스로에게 한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